광주·전남 자영업자 빚내서 버틴다

음식·숙박업 대출금 광주 8429억·전남 8313억 서비스업 18조 넘어…4.5% 증가 역대 최고치

한은 '2019년 산업별 대출금'

광주•전남지역에서 지난해 자영업자가 몰린 서비스업 대출금이 18조원을 넘겼 다. 서비스업 대출금 증가폭은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뛰었다.

음식·숙박업,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내수 부진에 업황이 나빠지자 대출로 버틴 결과로 풀이된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9년 4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 대출금' 자료를 종 합하면 지난해 지역 서비스업 예금은행 대출 잔액은 광주 10조9426억원·전남 7 조6143억원 등 18조5569억원으로 집계

지난해 광주·전남 서비스업 대출금은 전년(17조6836억) 보다 4.9%(8733억) 증가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서비스 업 대출금 증가폭은 지난 2018년 2.7% (4745억↑)의 2배 수준으로 커졌다. 지 난해 제조업 대출금이 4222억(광주 2505 억·전남 1717억) 증가에 그친 것과 대조

광주서비스업 대출금은 10조9426억원 으로 전년(10조2019억) 보다 7.2% (7407억↑) 증가하며 11조원에 육박했 다. 전남 대출금도 7억3382억원

광주은행, 광주신보 이어 전남신보에도 10억 특별출연

■서비스업 대출금 추이 〈단위:억원〉

	2017	2018	2019
광주	9조8709	10조2019	10조9426
전남	7조3382	7조4817	7조6143

■숙박음식점업 대출금

	2017	2018	2019
광주	7766	7978	8429
전남	6961	7904	8313

〈자료:한국은행〉

(2017년)→7억4817억원(2018년)→7억 6143억원(2019년)으로 매년 1500억원 가까이 늘고 있다.

전체 서비스업 대출금의 10분의 1을 차 지하는 숙박·음식점업 대출금도 가파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지난해 지역 숙박·음식점업 대출금은 광주 8429억·전남 8313억 등 1조6742억 원으로, 전년(1조5882억)보다 860억 (5.4%)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지난해 광주•전남에서는 부동산업 대출이 5조493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 4조9105억 ▲숙박·음식 점업 1조6742억 ▲보건업·사회복지 서비 스업 1조6700억 ▲금융·보험업 1조2139 억 ▲운수・창고업 1조100억 ▲공공행정 등 기타 서비스 9692억원 등이 뒤를 이었

지난해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을 포함 한 지역 산업대출 잔액은 60조6742억원 (광주 36조8886억·전남 23조7856억)으 로, 전년에 비해 4조9699억(8.9%) 증가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송종욱(왼쪽) 광주은행장이 4일 코로나19 피해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전남도(도지사 김영록·가운데)와 전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 양수)에 10억원을 특별출연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지 역 소기업・소상공인 대출지원을 위해 특 별출연을 확대했다.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4일 전남 신용보증재단과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맺고 10억 원을 특별출연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광주은행은 광주신용보증재단에 10억원 을 특별출연했다.

전남신보는 광주은행 출연금을 재원으 로 총 120억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를 입은 전남지역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으로,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이며 고객이 부담 하는 보증요율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0.8% 이내로 우대적용한다. 대출금리도 최대 1.0%포인트까지 특별우대한다.

광주은행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 금에도 조기 출연할 계획이다.

송 행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 기업・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불씨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기아차 '개인 사업자 지원 구매 프로그램' 출시

초기 6개월 월 납입금 없애

기아자동차㈜는 개인 사업자 고객의 부 담을 경감하고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인 사업자 지원 구매 프로그램'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개인 사업자 지원 구매 프로그램'은 개 초기 6개월 동안 월 납입금 없이 차량을 이

이달 모닝・카니발 등 구입 고객 인 사업자 비중이 높은 대표 차종을 대상 으로 초기 6개월 월 납입금을 없애고, 기 프트 카드를 증정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 제공하는 구매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 3월 중 모닝, 레이, 카니발, 봉고 1t을 출고하는 개인 사업자 고객이 이 번 구매 프로그램(자유형 할부 기반)을 이 용할 시 총 36개월의 할부 기간 중 구입 후

용할 수 있다. 실제 할부 원금은 6개월 이 후부터 30개월 동안 4.0%의 특별 금리로 상환할 수 있다. 단 자유형 할부 정상 금리 는 36개월 기준으로 전 기간은 5.0%다.

예를 들어 신차 가격이 1350만원인 '모 닝 럭셔리 트림'을 선수금 10%를 납입하 는 조건으로 구매할 경우 후기 30개월 동 안만 월마다 약 42만원을 납입하면 된다. 결과적으로 45만원 상당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기아차의 설명이다.

또 이번 구매 프로그램은 선수율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고객의 경제 상황 에 맞게 언제라도 할부금을 상환할 수 있 도록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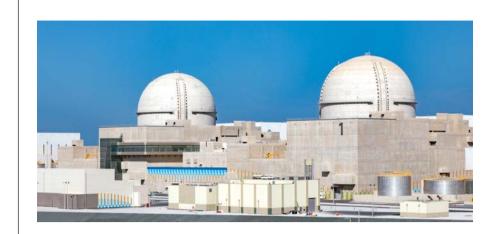
이밖에 이번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 모두에게는 기아차가 소비 활성화 지원을 위해 준비한 20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 를 제공한다.

기아차 관계자는 "최근 침체된 경기 상 황에서 개인 사업자 고객분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출시하게 됐다"며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에 기여하 는 기아차가 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59.33 (+45.18) ↓ 금리 (국고채 3년) 1.03 (-0.08)
- 코스닥 641.73 (+14.91) 🕹 환율(USD) 1187.80 (-7.40)



한국 수출 1호 'UAE 원전' 연료 장전

한국의 첫 수출 원자력발전인 아랍에미 리트(UAE) 바라카 원전〈사진〉 1호기가 연료장전을 마쳤다.

한국전력은 발주자인 UAE 원자력공사 (ENEC)와 협력해 바라카 원전 1호기 가 동을 위한 연료장전을 성공적으로 완료했 다고 4일 밝혔다.

바라카 원전 1호기는 UAE 원전 운영 사인 '나와'가 지난 달 17일 운영허가를 취득한 데 이어 연료장전도 마치면서 본 격적인 가동 준비에 들어가게 됐다.

바라카 원전사업은 한국형 차세대 원전

인 APR1400 4기를 UAE 수도 아부다비 에서 서쪽으로 270km 떨어진 바라카 지역 에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한전은 10여 년 전인 2009년 12월 ENEC과 계약을 체결 한 후,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한국 최초 의 수출형 원전인 'APR1400' 4개 호기를 바라카에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협력해 왔다. UAE는 이를 통해 아랍국가 최초로 핵연료가 장전되고 원전이 가동되면서 향 후 안정적 전력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 상된다고 한전 측은 설명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금호고속, 코로나19 극복 헌혈 캠페인

금호고속은 코로나19로 혈액수급이 어 려짐에 따라 5일부터 15일까지 헌혈캠페 인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금호고속 전 임직원은 대한적십자사 광 주·전남혈액원과 함께 캠페인 기간 유·스 퀘어 2층 헌혈의집 터미널센터에서 긴급 단체헌혈을 실시한다. 또 캠페인 기간 헌 혈의집 터미널센터에서 헌혈 참여자에게 헌혈증서와 기존 헌혈기념품 외 유·스퀘

어 내에서 쓸 수 있는 1만원 상당의 쿠폰 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해 직원들의 희망 무급휴직을 실시하 고, 임원급여의 20%를 삭감하는 등 비상 경영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금호고속은 혈 액재고를 높이고 소비를 활성화를 위해 헌혈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코로나 여파에도 벤츠 등 수입차 질주

지난달 벤츠 33.3% 증가

코로나19 여파에도 벤츠 등 주요 수입 차의 국내 판매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4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발표 한 '2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대수'에 따 르면 이달 신규등록된 수입차는 1만6725 대로 작년 동월보다 5.3% 증가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4815대로 1년 전보 다 33.3% 증가하면서 국내 판매 1위 자리 를 지켰다. 벤츠는 올해 두 달 판매가 이미 1만대를 넘었으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9.6% 증가한 1만307대를 기록 중이다.

BMW는 지난달 판매가 3812대로 62.9% 뛰었다. 지난달 벤츠와 BMW 판 매는 각각 르노삼성차(3673대)보다 많은 것으로, 벤츠는 한국GM(4978대·쉐보레 브랜드도 포함)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수입차 판매 증가는 국내 완성차 업계 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생산차질과 수요감 소 등 이중고를 겪으며 내수 판매가 21.7%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벤츠와 BMW에 이어 쉐보레 973대, 볼 보 928대, 미니 768대, 폭스바겐 710대, 아우디 535대 등 순이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2월 29일 발행 구독신청: 062-220-0550 스: 062-222-0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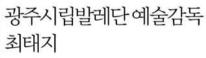
클릭, 문화현장⑤-세종시 국립세종도서관 & 대통령 기록관

눈호강, 마인 강변 박물관 거리 독일 프랑크푸르트

서울은 지금 즐거움과 안전을 디자인하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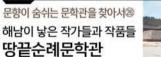






예향 초대석

"단원들 창작 에너지 가득, 지원 기대"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 연예인 죽음으로 내모는 사생활 사냥꾼들

KIA타이거즈 플로리다 스프링 캠프 현장





